

# 초등학생의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Self-Acceptance, Social Suppor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Speech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김 윤 전\*\*  
교 수 박 부 진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

Doctoral Student : Kim, Yun-Jeon

Professor : Park, Boo-Jin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acceptance, social suppor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affect their speech anxiety. A questionnaire survey was distributed to 570 fifth and sixth graders attending 4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 total of 534 surveys were completed and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2.0 including frequency test,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alysis, simultaneous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self-acceptance, social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peech anxiety, gender affected speech anxiety. Second, speech anxiety was most affected by self-acceptance, followed by social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gender in the order of mention. Third, social support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ceptance and speech anxiety.

---

▲주요어(Key Words) : 발표불안(speech anxiety), 자기수용(self-acceptance),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내적통제성(internal locus of control)

### I. 서론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에게 있어 수업시간의 경험은 아동의 정서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최근 학교 수업 방식은 일방적으로 듣고 외우는 예전의 주입식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7차 교과서 개정 이후, 소집단 내에서 의견을 나누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교사 및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수업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태도와 함께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그룹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처럼 개인이 다수의 타인에게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견해를 표명해야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상황에서 타인의

---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교신저자 : 김윤전 (E-mail : swindk@yahoo.co.kr)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 질 때, 불안을 나타내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반응을 발표불안(Speech Anxiety)이라고 정의한다(Fremouw & Breitenstein, 1990; Barlow, 2004).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에 따르면 이러한 발표불안은 불안 장애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서 불편함과 불안을 경험하는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에 포함되는 것으로, 발표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발표 상황에서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땀을 흘리거나, 떨리거나, 뺨이 붉어지거나 위장 장애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발표불안을 겪을 경우, 다른 개인 또는 다수가 참여한 대화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되며(McCroskey, 1984),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하기도 한다(Daly & Stafford, 1984). 또한, 발표불안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발표불안을 가진 아동은 자아개념이나 자존감이 낮으며 자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다. 그리고 심할 경우 신경쇠약, 우울증, 편집경향 등의 임상적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Kim, 2001). 비슷한 맥락으로 Mahoney(1980)는 발표불안이 높은 사람은 피로나 신경쇠약에 걸리기 쉽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표불안을 경험할 경우, 학습활동이나 대인관계를 원활히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는 이성교제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성년기의 사회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Kim & Choi, 2003). 그렇기에 발표불안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시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발표불안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교사는 공격적이거나 말썽을 부리는 아동보다 발표불안을 호소하는 아동들을 덜 문제 삼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이 많다(Kim & Choi, 2003).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표불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정서적 건강 및 나아가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발표불안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발표불안은 사회불안(Social Anxiety)의 하위유형으로 사회불안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Kessler, Stein, & Berglund, 1998; Stein & Hollander, 2002; Hofmann, 2004; Cottraux, 2005), 발표불안은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들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Fremouw & Breitenstein, 1990; Cho & Won, 1997). 또한, 사회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집단치료를 받았던 대다수의 내담자들이 심한 발표불안을 호소하였으며, 사회불안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발표상황에서의 불안감이 가장 심하였다(Turner et al., 1986;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Kim & Won, 2000). 특히, 아동기 사회불안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발달을 저해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유해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시기에 사회불안을 보이는 경우 일생동안 장애가 지속될 정도로 만성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Moon & Oh, 2002; Kim-Cohen et al., 2003).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된 불안 특히, 사회불안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발표불안과 관련된 변인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불안과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되어 온 주제 중의 하나가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다.

자기수용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MacInnes, 2006; Kim, 2007). 즉, 자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 생리적 현상, 자신의 느낌과 생각, 가치관, 성격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로(Han et al., 1994), MacInnes(2006)는 자기수용을 높임으로써, 심리적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수용과 불안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 and Jo(2005)는 아동의 자기수용이 높을 때 아동의 불안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수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동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중요한 치료적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Lee and Cho(2009)의 연구에서는 자기수용과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발표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이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애정, 수용 및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으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정서 및 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과 함께 적응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Garnefski & Diekstra, 1996; Helsen, Vollebergh, & Meeus, 2000; Kim, 2002). 또한, 아동은 부모나 친구,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ken & Asendorpf, 1997). 이처럼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교사로부터의 인정, 관심과 같은 교사지거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서 얻게 되는 또래지지와 같은 긍정적 자원을 많이 가질수록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는데(Kim, 1996), 높은 사회적 지지는 사회불안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다(Robinson, 1997; Stein & Hollander, 2002).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 사회불안의 주요한 하위유형인 발표불안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발표불안과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서 내적통제

성(internal locus of control)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내적통제성은 인과적 원인지각에 대한 신념으로서(Kim, Sandler, & Tein, 1997), 주어진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정도가 내적 요소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고 믿는 태도이다(Rotter, 1975). 내적통제성과 불안과의 관계연구로 Lee and Chang (1990)은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내적통제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경향이 있으므로(Baek & Choi, 1997), 능력이나 노력, 확신, 만족 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Weiner, 1980), 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Lee & Choi, 1993), 내적통제성이 높은 학생이 성취동기와 학습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Sherman & Hoffman, 1980; Lee, 1994). 그러므로 내적통제성이 높은 학생이 발표와 같이 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므로 불안 수준이 낮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안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변인은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불안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거나 인지-행동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불안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Cho, 2001; Hofmann, 2004; Anderson et al., 2005; Kim, 2005; Shin, 2009).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변인들과 발표불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표불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변인들 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안과 관련이 있는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의 세 가지 변인이 발표불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사회불안은 남아와 여아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La Greca & Stone, 1993),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불안을 보이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Han & Yoo, 1996). 그러므로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성별에 따라 각 변인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외부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으며(Ellis & Harper, 1997; Chamberlain & Haaga, 2001),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아개념이 확고하다는 연구 결과들에 주목하였다(Wills, Vaccaro, & McNamara, 1992; Wenz-Gross, Siperstein, & Unith, 1997; Kim & Park, 2001).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나타나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나타난

다면 아동의 발표불안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인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아동의 현재 정서에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의 생활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칠 수 있는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들(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을 밝히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표불안을 겪는 아동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발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녕과 건강한 인성발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 및 발표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성별,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및 내적통제성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4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평균 12~13세경인 청소년기 초기에 사회불안이 발병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Strauss and Last(1993) 및 Stein and Hollander(2002)의 연구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10대 초반부터 사회불안이 시작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Oh and Yang(2003)의 연구에 근거한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282명(52.8%), 여학생 252명(47.2%)이었으며, 학년은 5학년 252명(47.2%), 6학년 282명(52.8%)로 나타났다. 자신이 지각한 학교성적은 상위 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133명(24.9%), 중위 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325명(60.9%), 하위 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76명(14.2%)이었으며, 경제수준은 상위 수준에 속하는 학생은 100명(18.7%), 중위 수준 388명(72.7%), 하위 수준 46명(8.6%)이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엄하다'라고 지각한 학생이 95명(17.8%), '보통이다'라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N=534)

Variables	Category	n(%)
Gender	Male	282(52.8%)
	Female	252(47.2%)
Grade	5	252(47.2%)
	6	282(52.8%)
School achievement level	High-level	133(24.9%)
	Mid-level	325(60.9%)
	Low-level	76(14.2%)
Economic level	High-level	100(18.7%)
	Mid-level	388(72.7%)
	Low-level	46( 8.6%)
Parent's rearing attitude	strict	95(17.8%)
	usual	223(41.8%)
	gentle	216(40.4%)

지각한 학생이 223명(41.8%), '너그럽다'라고 지각한 학생이 216명(40.4%)이었다.

## 2. 측정도구

### 1) 발표불안

발표와 관련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전남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의 대중 앞 발표불안 검사, 임봉순의 발표불안 척도, 김혁곤의 사회적 불안 검사 등의 기존 검사를 종합하여 임택이 구성한 발표불안 검사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Um(2003)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발표불안 검사지이다. 이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 평가 불안, 사회적 기술관련 불안, 발표불안 증상의 3개의 하위영역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 자아평가 불안은 발표와 관련된 부정적 생각을 의미하고, 사회적 기술관련 불안은 발표상황에서의 태도, 요령과 경험을 의미하며, 발표불안 증상은 발표할 때 느끼는 불안의 제 증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Um(2003)의 연구에서 발표불안 척도의 각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 분석 결과, 하위요인들이 .64~.70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78~.84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어, 총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표불안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5단계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점수 부여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발표불안 정도가 높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 발표불안 정도가 낮다고 해석한다. 발표

불안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발표불안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6으로 나타났다.

### 2) 자기수용

자기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Phillips의 자기수용도 검사(Self-Acceptance Scale)를 박종권이 번안하여 중학생들에게 적용한 것을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Kim(2002)이 전문가들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5단계 척도를 채택하였다. 점수 부여 방식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까지로 하였으며, 이 척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으면 자기수용 정도가 높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자기수용 정도가 낮다고 해석한다. 자기수용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4로 나타났다.

###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Dubow와 Ullman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Han and Yoo(1996)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지지는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와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 도움 등을 의미하고, 교사지지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정서적 지원과 친밀감 등을 의미하며, 또래지지는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심리적 안정감 등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범위는 .37-.4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하위요인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다른 하위요인에서도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아동 자신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교사나 또래로부터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식 5단계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점수 부여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를 5점까지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2로 나타났다.

#### 4) 내적통제성

본 연구에서 내적 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는 Nowicki & Stickland가 제작한 『아동용 Internal-External Scale: I-E Scale』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제작한 학생용 내적 통제 척도를 다시 Kim(1987)이 긍정적인 문장과 부정적인 문장을 혼용하여 ‘예, 아니요’의 2단계 척도로 수정·제작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부여 방식은 “그렇다” 1점, “아니다”를 0점으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내적 통제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62로 나타났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2010년 6월 4일 서울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 5, 6학년 남,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의미전달이 혼란스러운 단어를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에 소

재하는 B초등학교 142명, C초등학교 100명, D초등학교 156명, E초등학교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고,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별도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담임교사를 사전에 만나 연구의 목적 및 검사 실시 지침을 설명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570부 중에서 응답이 누락 또는 중복되거나 잘못 기입되었다고 판단된 36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534부가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신뢰도,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표준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 발표불안의 차이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 통제성, 발표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표불안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29, p<.05$ ). 즉, 여학생( $M=51.55, SD=20.06$ )이 남학생( $M=47.63, SD=19.43$ )에 비해서 발표불안 점수가 더 높았다.

#### 2. 초등학생의 성별,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의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 발표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들(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 발표불안) 및 t-검증 실행 후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성별을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Pear-

Table 2.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acceptance, social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peech anxiety by gender (N=534)

Variables	Male(n=282)	Female(n=252)	t
	M(SD)	M(SD)	
Speech anxiety	47.63(19.43)	51.55(20.06)	-2.29*
Self-acceptance	85.65(19.19)	83.34(21.72)	1.31
Social support	86.10(16.35)	87.29(17.38)	-.81
Internal locus of control	16.11( 3.49)	16.29( 3.48)	-.57

\* $p < .05$

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초등학생의 성별,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발표불안을 종속 변수로,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 성별)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여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 계수가 1.91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는 1.0 이하이고 VIF값이 2.0 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성별,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은 발표불안에 대해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성별,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은 발표불안에 대해 46%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자기수용( $\beta = -.58, p < .001$ ), 사회적 지지( $\beta = -.11, p < .01$ ), 내적통제성( $\beta = -.08, p < .05$ ), 성별( $\beta = .07, p < .05$ )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불안에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베타값( $\beta$ )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

성, 성별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입력하여 발표불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2단계에서는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추가 입력함으로써, 주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중재효과가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Aiken and West(1991)의 지침에 따라 중재변인을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를 산출한 후 비교하여, 중재변인의 수준에 따라 자기수용과 발표불안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88로 산출되어 2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peech anxiety, self-acceptance, social support,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gender

Variables	1	2	3	4	5
1. Speech anxiety					
2. Self-acceptance	.944***				
3. Social support	-.381***	.414***			
4. Internal locus of control	-.349***	.393***	.464***		
5. Gender	.099*	-.057	.035	.020	

\* $p < .05$ , \*\*\* $p < .001$

Table 4. Effects on speech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der, self-acceptance, social suppor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N=534)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beta$	t
Speech anxiety	Self-acceptance	-.56	-.58	-15.99***
	Social support	-.13	-.11	-2.82**
	Internal locus of control	-.45	-.08	-2.11*
	Gender	2.83	.07	2.21*
		$R^2 = .46$	Adj- $R^2 = .46$	F = 112.46***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elf-acceptance and speech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N=534)

		$\beta$	t	R <sup>2</sup>	Adj-R <sup>2</sup>	F	
Speech anxiety	1	Self-acceptance	-.61	-17.16***	.44	.44	217.43***
		Social support	-.13	-3.68***			
	2	Self-acceptance	-.91	-5.75***			
		Social support	-.38	-2.91**	.45	.45	147.05***
		Self-acceptance $\times$ Social support	.47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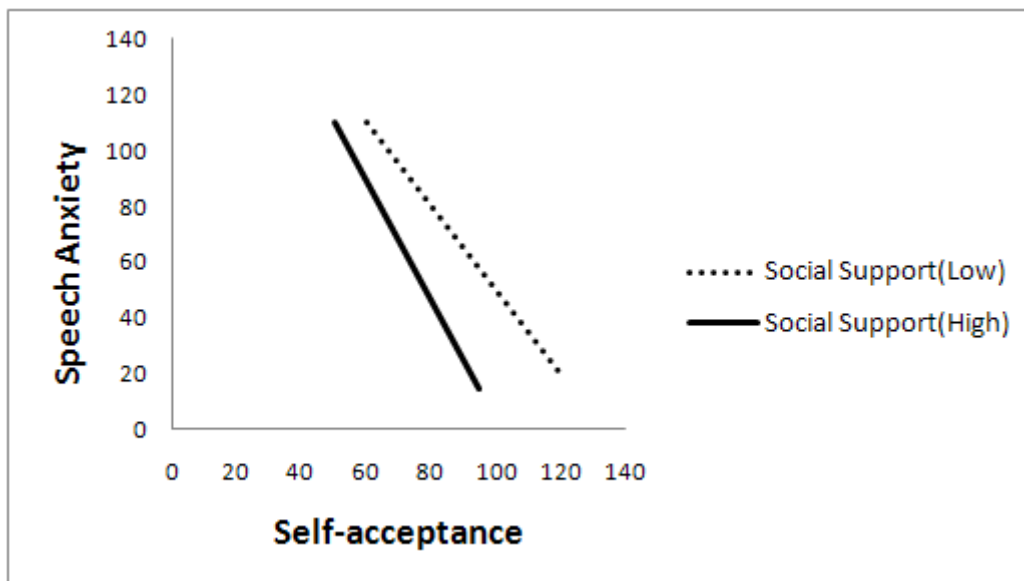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elf-acceptance and speech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발표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자기수용( $\beta = -.61$ ,  $p < .001$ )과 사회적 지지( $\beta = -.13$ ,  $p < .001$ )가 모두 초등학생의 발표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자기수용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발표불안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추가로 입력된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발표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44%에서 45%로 유의하게( $p < .05$ )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중재효과에 대해 사회적 지지의 상·하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Figure 1> 참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초등학생 집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7$ ), 사회적 지지가 높은 초등학생 집단( $\beta = 2.36$ ,  $p < .05$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는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중재효과가 있는데, 특히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러한 중

재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 및 발표불안의 차이를 비교하고, 초등학생의 성별,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및 내적통제성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갖는 중재효과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발표불안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발표불안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발표불안에 관한 Kim and Choi(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70%가 여성이라는 Cottraux(2005)의 연구 결과 및 남아보다 여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Lee and Kim(2007)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학생에 비해서 정서적·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하는 여학생은 또래관계에 대한 애착이 높아서 또래관계를 보다 중요시하며 남학생들보다 관계지향적이다(Choi, 2006). 따라서 여학생들은 또래관계 속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동시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크며, 또래의 시선에 대해 남학생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발표는 다수의 또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또래의 시선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학생이 발표라는 사회적 상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만큼 발표상황에서 불안을 느낄 가능성과 그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성별과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및 내적 통제성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변수들 간의 전체 설명력은 46%였으며,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 성별 순으로 발표불안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불안에 대한 자기수용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수용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 Kim(2005)이 밝힌 연구 결과 및 대학생의 자기수용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두 변인이 서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감소되고, 반대로 자기수용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는 Lee and Cho(2009)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발표불안은 야기될 수 있는데, 자기수용이 높을 경우 자신의 느낌과 생각, 자신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덜 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낮아져서 발표불안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긍정적인 면은 쉽게 수용하지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은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힘들어한다(Seol, 1997). 특히 이상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 현실적인 자기와의 괴리감이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수용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Kim, 2005)을 감안했을 때, 이상적인 자기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부인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기수용이 높아져서 발표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표불안이 감소되었을 경우,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

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기수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발표불안을 더욱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발표불안에 대한 영향력이 큰 또 다른 변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와 발표불안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특히 대인관계 불안과 수행상황에서의 불안이 낮아진다는 Hwang and Jeong(2008)의 연구결과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Lee and Kim(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생활 국면에서 경험하는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인의 도움에 대한 의존성이 높는데(Compas, 1987), 아동이 자신이 속한 환경 내의 중요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될 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이 증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되므로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Park & Park, 2010). 발표불안을 경험하는 아동에게 있어 발표 상황 역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되므로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될 때, 발표불안을 덜 경험하게 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또 다른 변인은 내적통제성이다. 내적통제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내적통제성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는데,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이다(Abraham & Christopherson, 1984; Enger, Howerton, & Cobbs, 1994; Kim, 2003; Choi & Moon, 2004). 또한, Greenberg et al.(1992)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불안과의 부적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심리적 기제이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불안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Kernis, Brockner, and Frankel(1989)도 자아존중감과 불안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타인으로부터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속되는 유사한 경험에 대한 수행과 동기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불안이 상승된다는 것이다. 즉, 내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갈등에 대한 통제능력과 적응력이 뛰어나므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축소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Kim, 2003). 또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지각이나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개방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Coopersmith, 1981; Lee & Youn, 2007), 집단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해야하는



발표상황에서 불안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기수용이 초등학생의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의 중재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수용이 높을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발표불안이 더욱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수용이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발표불안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이러한 기제는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Wills, Vaccaro, & McNamara, 1992; Wenz-Gross, Siperstein, & Unith, 1997; Sim, 2000; Kim, 2002)에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한, Ahn and Park(2005)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수용의 정적인 상관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수용 역시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아동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상승되고, 아동이 스스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할수록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자기수용 또한 상승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발표불안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Lee and Kim(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불안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되어 있으며, Hwang and Jeong(2008)은 연구에서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불안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기수용이 높으면 발표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 발표불안은 더욱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중재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어느 한 가지 원인만이 단독적으로 발표불안 생성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역동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표불안을 일으키게 되는데(Nutt & Ballenger, 2003; Shin, 2009), 이와 마찬가지로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또한 어느 한 가지 요인만이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속에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수용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중재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아동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라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뒷받침이 있을 때 아동의 발표불안이 더욱 효과적으로 감소

된다는 점이 시사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의 발표불안 상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의 다양한 연령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에 대한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따라서 부모 및 교사 보고식 검사, 면접 및 행동관찰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면 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을 단일차원에서의 일반적인 내적통제 신념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발표불안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면, 그 영향을 보다 구체화시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수용, 사회적 지지, 내적통제성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 및 내적통제성이라는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연구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발표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기제를 밝히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인지-행동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발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토론학습이 중요시 되어 가는 학교 현장에서 발표불안을 겪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발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REFERENCE

- Abraham, K. G. & Christopherson, V. A.(1984). Perceived competence among rural middle school children: Parental antecedents and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 343-351.
- Ahn, S. H. & Park, M. Y.(2005). Determinants of the general self-esteem: Influence of self-view, importance, and acceptance of specific domai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4(1), 109-140.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 Aken, M. A. G. & Asendorpf, J. B.(1997). Support by parents, classmates, friends, and siblings in pre-adolescence: Covariation and compensation across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79-9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nderson, P. L., Zimand, E., Hodges, L. F., & Rothbaum, B. O.(2005).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public-speaking anxiety using virtual reality for exposure. *Journal of Depression and Anxiety, 22*, 156-158.
- Baek, Y, H. & Choi, W. S.(1997). Influence of environmental variables, inner control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adolescent's stress.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2), 33-48.
- Barlow, D. H.(2004).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N.Y.: The Guilford Press.
- Chamberlain, J. M. & Haaga, D. A. F.(2001).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Journal of Rational-Emotive Therapy & Cognitive-Behavior Therapy, 19*, 177-189.
- Cho, Y. R.(2001).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peech anx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 399-411.
- Cho, Y. R. & Won, H. T.(1997).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Psychological Issues, 4*, 397-434.
- Choi, M. J.(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peer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Korea.
- Choi, W. S. & Moon, K. R.(2004). On factors affecting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arent Education, 12*(1), 149-165.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mpas, B. E.(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opersmith, S.(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2n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ottraux, J.(2005). Recent developments in research and treatment for social phobia(social anxiety disorder).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8*, 51-54.
- Daly, J. A. & Stafford, L.(1984).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ommunicative anxiety. In J. A. Daly & J. C. MacCroskey(Eds.). *Avoiding Communication*(125-144). London: Sage Publication.
- Ellis, A. & Harper, R. A.(1997). *A guide to rational living* (3rd ed). North Hollywood, CA: Wilshire.
- Enger, M., Howerton, D., & Cobbs, C. R.(1994).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nd parental verbal interaction of at risk black male adolesc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3), 269-274.
- Fremouw, W. J. & Breitenstein, J. L.(1990). Speech anxiety. In H. Leitenberg(Eds.),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455-474).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 Garnefski, N. & Diekstra, R.(1996).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chool and peers: relationship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12), 1657-1664.
-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Rosenblatt, A., Burling, J., Lyon, D., Simon, L., & Pinel, E. (1992).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Converting evidence that self-esteem serves an anxiety-buffering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13-922.
- Han, J. C., Kim, E. K., Kim, Y. R., & Bae, J. M.(1994). Development of self-growth program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 *Yonsei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 43*, 171-202.
- Han, M. H. & Yoo, A. J.(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hild Study, 17*(1), 173-188.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319-335.
- Hofmann, S. G.(2004). Cognitive mediation of treatment change in social phob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 392-399.

- Hwang, M. S. & Jeong, E. H.(2008). A study on an influence of academic achievement over social support and social unres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0(1), 111-125.
- Kernis, M. H., Brockner, J., & Frankel, B. S.(1989). Self-esteem and reactions to failure: The mediating role of overgener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707-714.
- Kessler, R. C., Stein, M. B., & Berglund, P.(1998). Social phobia subtype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613-617.
- Kim, A. K.(2002).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social supports, and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problems of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6(3), 31-50.
- Kim, A. K.(2003).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351-372.
- Kim, B. H. & Choi, H. L.(2003). The relation among self-consciousness, self-efficacy, irrational belief and speech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3), 581-593.
- Kim, B. Y.(2005). Development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lementary children with speech anxiety and its effects. *The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4(1), 167-190.
- Kim, E. C.(1987).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cademic achievement and test anxiety*.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Kim, E. J., & Won, H. T.(2000). Social self-processing in social phobic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33-45.
- Kim-Cohen, J., Caspi, A., Moffitt, T., Harrington, H., Milne, B., & Poulton, R.(2003). Prior juvenile diagnoses in adults with mental disorder: Developmental follow-back of a prospective-longitudinal coh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 709-717.
- Kim, J. A.(2002). *The effects of REB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acceptance, problem solving andtion for learn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Korea.
- Kim, K. W.(2007).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elf-acceptance and stress cop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4), 983-999.
- Kim, L., Sandler, I. N., & Tein, J. Y.(1997).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and mediator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5-129.
- Kim, M. S.(1996). A study on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hild Study*, 11(1), 61-75.
- Kim, M. S.(2001).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sentation anxiety,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Korea.
- Kim, S. H. S.(2005). The mediating effect of a child'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fectionism and the child's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4), 461-481.
- Kim, S. H. S. & Jo, H. I.(2005).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erfectionism and child'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hild Study*, 26(5), 151-163.
- Kim, Y. H. & Park, K. J.(2001).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Journal of Child Study*, 22(2), 49-64.
- La Greca, A. M. & Stone, W. L.(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17-27.
- Lee, G. E. & Cho, Y. J.(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social distres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in social distres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6(2), 191-204.
- Lee, H. C. & Choi, J. Y.(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social problem solv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2), 152-160.
- Lee, I. S. & Youn, J. S.(2007). Effects of aromatherapy on speech anxiety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20(1), 37-44.
- Lee, M. S.(1994). *The effect of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 achievement motivation on a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Korea.
- Lee, S. H. & Chang, I. W.(1990). Study on anxiety and control-locus of vocational girls' highschool students. *Chung-Ang Journal of Medicine*, 15(3), 297-306.
- Lee, S. H. & Kim, Y. H.(2007).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anxiety. *Korean Journal of Welfare Counseling*, 2(2), 85-98.
- Macinnes, D. L.(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3-489.
- Mahoney, M. J.(1980). *Abnormal psychology*. N.Y.: Harper & Row.
- McCroskey, J. C.(1984). The communication apprehension perspective, In J. A. Daly & J. C. McCroskey(Eds.), *Avoiding communication*(13-38). London: Sage Publication.
- Moon, H. S. & Oh, K. J.(2002).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29-443.
- Nutt, D. & Ballenger, J.(2003). Anxiety disorders. Blackwell Science. Pribyl, C. B., Keaten, J. & Sakanoto, M.(2001). The effectiveness of a skills-based program in reducing public speaking anxiety.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43, 148-155.
- Oh, K. J. & Yang, Y. R.(2003). Psychological mechanism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ce II: A 6 month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577-597.
- Park, J. H. & Park, J. M.(2010). The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exam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hild Study*, 31(6), 125-134.
- Robinson, T. E.(1997).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the basic public speaking course: A national survey of in-class treatment techniques. *Communication Education*, 46, 188-197.
- Rotter, J. B.(1975). Some problems and misconception related to the construct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1.
- Seol, K. M.(1997). *Human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Seoul: HakJisa Publisher.
- Sherman, L. W. & Hoffman, R. J.(1980). Achievement as a momentary event, as a continuing state, locus of control.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1, 1159-1166.
- Shin, J. E.(2009).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to relieve college students of public speaking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1), 285-297.
- Sim, S. W.(2000). *The relationship among the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Korea.
- Strauss, C. C. & Last, C. G.(1993). Social and simple phobias in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 7, 141-152.
- Stein, D. J. & Hollander, E.(2002). *Textbook of anxiety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Turner, S. M., Beidel, D. C., Dancu, C. V., & Keys, D. J.(1986). Psychopathology of social phobia and comparison to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389-394.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326-331.
- Um, E. N.(2003).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peech training with small group for decreasing speech anxiety and its effec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Weiner, B.(1980). The role of affect rational(attributional) approaches to human motivation. *Educational Researcher*, 9(7), 4-11.
- Wenz-Gross, M., Siperstein, G. N., & Unith, A. S.(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2), 129-151.
- Wills, T. A., Vaccaro, D. & McNamara, G.(1992). The role of life events, family support and competence in adolescent substance us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349-374.

- 접수 일 : 2011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11년 12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5일